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 동 지 침†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 기브온의 사람들 I

(여호수아 9:1~27)

이종윤 원로목사

기브온 백성을 칭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의 입장이라면 어찌 했겠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 산지에 거하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으로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해 싸울 힘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두려운 나머지 결국 속이는 꾀를 낸 것이다. 삼 일 길 밖에 살던 그들은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헤어진 전대와 찢어진 기운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낚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낚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곱팡이 난 떡을 준비하여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왔다. 그리고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임을 알지 못하여 진멸하지 않고 조약을 맺고 말았다.

### I. 이스라엘의 과오

**1.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리리라 언약하고 맹세했다**

여호수아는 그때까지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은 것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패이다. 우리는 범사에 기도로 출발해야 한다. 먼저 모든 일에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다.

**2. 하나님께서는 그 땅 거민을 모두 멸하라 하셨으나 이를 온전히 행치 못한 것이 그들의 실수였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울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출 34:12 - 13)

**3.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 실수였다**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적인 것을 중요시하여 거기에 근거한 판단이 과오를 가져왔다. 냉장고에서 꺼낸 고기가 변색되었거나 냄새가 나면 상했다고 판단하듯 우리는 이 세상을 감각적으로, 느낌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느낌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추측은 진리를 왜곡시킬 수 있다. 세상에는 영적 눈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이 있다. 육의 눈만으로는 악을 볼 수 없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5, 6).

당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결코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 영적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악마는 우리를 속일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투를 하는 성도에게 권고한다(엡 6:10 - 18).

- ① 모든 성도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 ②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먼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으로
  -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 의의 흉배를 붙이고
  -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 믿음의 방패를 가지며
  -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③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용으로 가져야 한다.

④ 이에 덧붙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야 한다(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에서 실패했다.

### II. 과오의 결과

기브온 백성들은 속이기 위해 오래 준비했을 것이다. 반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오래 그들의 요구를 심사숙고하며 조사해 보았을까? 여호수아는 곧 그들과 화친했다고 했다(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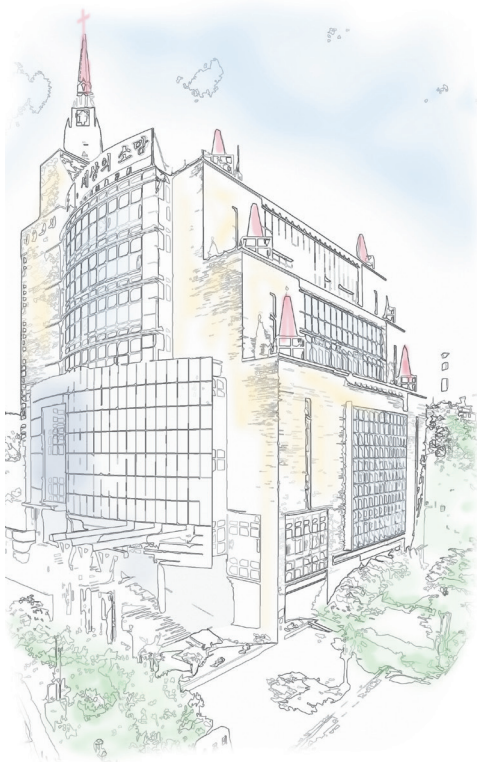
3일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언약에 매어 그들을 죽이지 못했다(19, 20절).

후일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수많은 기브온 백성을 죽였다.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잘못된 것이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편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삼 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삼하 21:1)

잘못은 사울이 했는데 그 심판은 다윗 때에 행해졌다. 사울의 피 흘린 대가를 다윗 때에 기근으로 치르게 하신 것이다. 다윗은 다시 기브온의 남은 백성과 합의하여 사울의 집을 심판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급하게 서두르면 어떤 일이든 이루어지기는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경우에 그로 인한 쓴 열매는 거두어야 한다.



#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 중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부서	일정	장소	주제	교역자
유년부	7월 26일 (목) - 28일(토)	아가페타운	위대한 건축가 "느헤미야 프로젝트" (빌립보서 2:13)	박미라 전도사
초등부				
중등부	7월 26일 (목) - 28일(토)	아가페타운	"You are My People" (출 19:5-6)	최승원 전도사
고등부				
청년1부	8월 13일(월) -15일(수)	아가페타운	"치유하시는 하나님" (열왕기하 20:5)	심우진 목사
청년2부				
에바다부	8월 11일(토)	서울교회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9:35)	서명철 목사
장로 수련회	8월 14일 (화)	아가페타운		



###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오후근 정복순 이남성/최영란 박창호/송민정 서운영 장석남 손명근 송정옥/이한기 김정재 김형상/최금숙 차도훈/남태영 이관모 오정수 김혜연/박은영 무 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 육군 제3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진중세례식

#### 7월28일(토)/ 3사단 십자군교회

비전2020운동본부(최광성 장로)에서 주관하는 육군 제3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진중세례식이 7월28일(토) 오후2시,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육군 제3사단 십자군교회에서 열린다. 이날 우리교회 조원영 목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후 장석남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를 위해 7월28일(토) 오전 7시 교회를 출발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석과 기도가 요구된다.

## 2017년 12월 31일, 업무방해 · 강요 없었다

지난 7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0표 외 2인이 김시환 집사, 이강인 집사, 배효복 집사, 장창수 집사, 김재환, 임광호 집사, 김현중 집사, 장경원 집사, 김혜연 집사, 이종형 집사, 김형택 집사 등 11명을 업무방해 및 강요로 고소한 사건에 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였다.

이0표외 2인은 2017년 12월 31일(주일) 박노철 목사의 교회 진입을 막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박노철 목사측은 따로 예배당을 마련하고 예배를 보고 있어 예배를 위해 교회에 출입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문서확인번호 2153-1979-1772-4800 발행번호 2-210-2018-14487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화번호 02)530-3114	
분류기준 및 수신 제 목 불기소이유통지	2018. 7. 19. 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 형제10375호
② 고소인성명	이0표 외 2명
③ 성명	이강인
④ 피의자(피고인) ④주민등록번호	김시환
⑤ 죄명	가.업무방해 나.강요
⑥ 처분점사	김시환
⑦ 처분년월일	2018. 7. 11.
⑧ 처분요지	가.나.혐의없음(증거불충분)
⑨ 불기소이유	별지 참조
⑩ 비고	

문서확인번호 2153-1979-1772-4800 발행번호 2-210-2018-14487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화번호 02)530-3114	
분류기준 및 수신 제 목 불기소이유통지	2018. 7. 19. 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 형제10375호
② 고소인성명	이0표 외 2명
③ 성명	김시환
④ 피의자(피고인) ④주민등록번호	김시환
⑤ 죄명	가.업무방해 나.강요
⑥ 처분점사	김시환
⑦ 처분년월일	2018. 7. 11.
⑧ 처분요지	가.나.혐의없음(증거불충분)
⑨ 불기소이유	별지 참조
⑩ 비고	

## 박노철목사 약식기소 현수막건도 혐의없음

지난 7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0진 외 4인이 이종윤 원로목사, 노문환 장로, 유태서 집사, 장창수 집사, 장상국 집사, 오윤걸 집사, 성기연 집사 등 7인을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였다.

최0진 외 4인은 지난 1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19일(금) 박노철 목사에게 법인카드 오사용 건에 대하여 사기, 업무상 배임의 죄목으로 구약식으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사

실에 관해서 순례자, 교회 홈페이지, 현수막 등에 기재하여 알림으로 박노철 목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노철 목사가 위임목사로서 그에 대한 교회 공금사용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결과는 교인들에게 사실관계를 알릴 의도로서 다수집단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의도로 판단되고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밝혔다.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RFID 라벨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소시효	장기	계	월
제기	단기	년	일
검사 이0표 외 4인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2018년 형제17898호	결정	2018. 7. 11.	검사 이0표 외 4인 (인)
피의자	죄명	주분	
별첨첨조	가.명예훼손 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무수처분 석발지회/소제수사지회/지방수회(홍보),매제		명령	집행
(해당없음)			인
압수물처분 기관부대본부/서울본부/의뢰사관부/보관/폐기/국고귀속		명령	집행
(해당없음)			인
비고			

여름성경학교에 초대합니다

## 위대한 건축가! 느헤미야 프로젝트!

### 장윤기 집사 (유년부 부장)

할렐루야~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학부모님과 가족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늘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하며 격려해 주시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유·초등부는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관을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에게 심어 주기 위해 모든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날이 무척이나 덥고 힘든 가운데에도 102호의 좁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찬양하기에 기뻐하는 유·초등부 어린이들을 매주 주일에 만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참된 교회의 지도자로 자라서 교회의 중

심이 되고 기둥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2018년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는 "위대한 건축가 느헤미야 프로젝트"로 정하였습니다.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잘 모르는 구약 시대 인물인 "느헤미야"를 주제로 삼은 이유는 느헤미야를 배움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의 참된 모습을 이해하고 준비되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52일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이 교회를 재건하고 다시 세우는데 중심에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 기도 합니다.

성경학교가 7월 26일(목) 부터 7월 28일(토)까지입니다만 이미 유·초등부의 성경학교는 이전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학교때 헌신할 찬양팀을 별도로 조직해서 매주 주일날 연습을 하고, 찬양팀 선생님과 찬양팀 학생들이 매일 시간을 맞춰 QT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팀을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기도수첩을 가지고 다니며 요일별로 주제를 만들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매일 기도하는 이유는 이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세워졌듯이 "오직 믿음"으로 다시 세워질 것을 믿기 때문이며 유·초등부가 그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교회를 재건하는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성경학교 잘 마쳤습니다

## 교회야! 마을로가자!



### 임대중 집사 (유아부 부장)

2018년 3월 이후 영·유아·유치·유년·초등부가 1층 102호에 모여 예배 드린지 다섯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15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예비 되어 있음에 감사드리는 한주 한주입니다.

영·유아부·유치부에서는 "교회야 마을로 가자 (마9:35)"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거룩한 자녀로 구별하여 선택하셨음을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예수님에 대해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30여명의 교사와 50여명의 아이들이 102호에서 함께 모여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유아부·유치부에서는 유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소중함을 배우고 성경공

부 및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신체활동, 미술활동, 요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영·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은혜중에 마쳤습니다.

영·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는 7월 21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1층 102호와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진행하였으며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교회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유아·유치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경학교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끊임 없는 기도와 관심 감사드립니다.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 장경원 집사(영어예배부 부감)

영어예배부 여름 수련회(Summer Retreat)가 7월 21일(토) 하루 일정으로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한터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서울교회의 아픔 중에도 우리 영어예배부를 보존해 주시고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영어예배부는 교회의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12월부터 김의창 목사님을 통해 매 주일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새 힘

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벗 삼아 창조주께 예배를 드리며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섭리를 통해 침과 회복을 맛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하듯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서로 알아 가며 진리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참석하여서 웅장한 산과 시원한 계곡, 맑은 물과 상쾌한 공기를 맛보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 새로운 시작, 예배의 회복



권영승 성도(7교구)

2018년 1월 본래 섬기던 교회를 떠나 이 곳 서울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였다. 이종윤 원로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아내가 친정 식구들을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결정한 일이었다. 새가족 등록을 하는데 나 말고도 다른 새가족분들이 계셨다. 함께 시작하는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사실이 나를 든든했다.

새가족 등록을 하며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 느슨해진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다짐이었다. '아기와 같은 믿음으로 건강하게 다시 뿌리 내리자.' 나는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하나

님 큰 은혜로 믿음의 자녀 되는 기쁨을 누렸다. 할머니께서 홀로 쌓으신 기도는 어머니를 주님께 인도하였고, 이제 내가 아버님을 전도하고 내 대(代)로부터 믿음의 가문을 시작할 사명이 있었다. 그러기 위하여 하이해진 신앙의 끈을 단단하게 고쳐 매어야 했다. 믿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난 나는 온 가족 구성원이 하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잘 알고 있다.

서울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순탄하기만 하였던 것은 아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예배,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저만치 앞서 가 있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멜로디 좋은 찬양, 재미있는 설교에 익숙해진 나에겐 조금 생소하였다. 하지만 출, 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설교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며 조금씩 말씀을 사모함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주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말씀을 여러 번 듣게 하시려고 이 곳 서울교회에 보내셨나 보다.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말씀과 떨어져 살았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예배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얻은 가장 큰 수확이었다. 나는 한동안 나 자신이 은혜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렸을 뿐, 이 예배를 주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상처받고 타협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악하게 살다 주일에 교회로 돌아와 상처받은 내 심령의 위안만을 구했었다. 나와 교통하고 싶으신 주님의 바람은 무시한 채 나만 위안을 얻으면 그만이었던 것 같다. 그 동안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참 많은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다. 엄격한 서울교회 예배 속에서 교회로 떠나는 마음가짐조차 경건하게 가지려고, 1시간 걸리는 지하철에서 한주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며 그렇게 조금씩 내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새가족을 수료하며 이제 나는 과연 주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도를 시작했다. 내가 있기 전부터 이 곳 서울교회에 부르시길 예비하셨던 주님이시기에 앞으로 감당할 역할 또한 합당하게 준비하셨을 것이라 믿는다.

## 동정



■ 연주회 : 3교구 박광서 집사(한국예술종합학교 은퇴교수) 『국제 타악기 페스티벌』 7월 24일(화) 8시 한국예술종합학교 크누아홀

■ 금주의 식사 : 잡채밥  
김순자 권사, 이영훈 집사  
(그 이기곤 집사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7월 26일(목)-28일(토) 아가페타운에서 모이는 유초등부 여성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여성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2. 7월 28일(토) 3사단 진중세례식에서 세례 받는 장병들이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평생 살게 하옵소서.

3. 우리나라에 거짓과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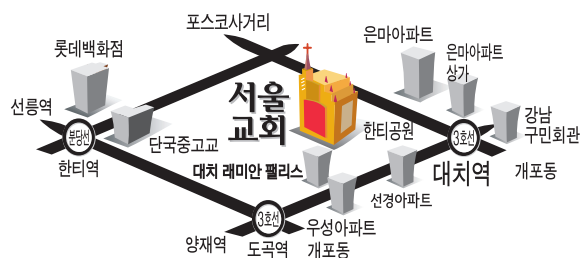
교구(부서): \_\_\_\_\_ 이름: \_\_\_\_\_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7월22일	주일	잠 25-28		민 1-4	
7월23일	월	잠 29-31		민 5-8	
7월24일	화	전 1-4		민 9-14	
7월25일	수	전 5-8		민 15-19	
7월26일	목	전 9-12		민 20-24	
7월27일	금	야 1-8		민 25-30	
7월28일	토	사 1-3		민 31-36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